

“어린이에 대한 상투적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

아이들의 삶 자체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서 시작해야

이호백 | 재미마주 대표

“지금 어린이책은 나아갈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혼돈의 상태에 있다. 이것은 어린이책을 둘러싼 대화의 내용이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다. 어린이책에 관계하는 이들의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틀 안에 굳어버린 어린이의 이미지를 어떻게 지워나갈지, 그리고 실제하는 아이들의 삶 자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어린이날이면 일간지 1면에 단골로 등장하는 사진이 있다. 야구장이나 공원 분수대에서 밝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이 그것이다. 그런데, TV광고에 등장하는 미래 사이버 세계의 아이들도 이런 상투적인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끝없는 우주 공간이나 사이버 스페이스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 다를 뿐, 아이들은 어디서나 천사같이 숭고하고 밝은 표정으로 하늘을 천진난만하게 쳐다보고 있다.

TV채널을 돌리면, 좋은 학습지로 공부한 아이가 갑자기 푹푹해지면서 (주식 투자에서 한몫 단단히 잡은) 아빠보다 더 푹푹하다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어린이의 이미지를 그대로 영국의 한 코미디 제작팀에게 각색하게 해서 <오늘을 사는 빅토리아 디지털 아이들>이란 제목으로 저녁시간에 방영한다면 그곳 시민의 배꼽을 건드릴 테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광고들은 제법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 시청자들은 웃기는커녕 엄숙한 자세로 매모까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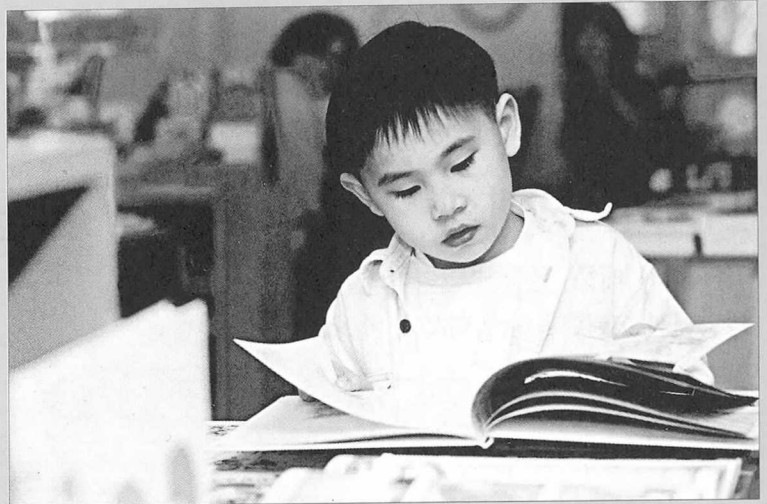
지배 이미지에 무력한 대항 이미지

천진난만함과 푹푹함으로 표상되는, 어린이에 관한 상투적 이미지는 비교적 대자본을 소유한 영상산업과 출판산업이 만들고 있다. 산업적으로 중요한 어린이 교육산업과 대중매체(아날로그나 디지털 모두) 산업에서 ‘어린이’에 관한 이런 이미지가 여전히 지배적으로 소통되고 있는 현

상은 어린이를 위한 산업의 내면적 질을 능히 짐작하게 한다.

한편, 지배적인 어린이 이미지에 대항하는 또 다른 어린이의 이미지가 있다. 이런 이미지는 ‘어린이책을 통한 대안교육 모임’에서 권장하는 신도불이 창작동화에서 주로 나타난다. 예컨대 모자를 비틀게 쓰고 험상궂은 얼굴이지만 태생은 착한 불량소년의 이미지 혹은 바보같은 웃음을 늘 입에 달고 있는 그로테스크한 ‘시골아이’나 ‘과거아이’(실제 시골에 산다든지 옛날의 아이처럼 느끼도록 그런 게 아니라, 시골이나 과거속에서 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얼굴을 일부러 촌스럽게 그리거나 과거에 있었던 사물 및 조형적 패턴을 적당히 넣는 등 상징적인 단서를 집어넣는 식의) 같은 이미지들이다. 이런 아이들은 ‘해답지 않게’ 세상의 모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도덕적 양심으로 괴로워하고 자연의 지혜에 감동하는 식으로 형상화된다. 그리고 이런 어린이 이미지를 담은 책들이 추천도서와 권장도서로 자주 선정되면서 좋은 책이라는 인상이 확대재 생산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책들이 양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 이른바 좋은 책을 만드는 방법까지 스테레오타입화한다는 점이다. 또, 이런 상투적인 이미지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 앞서 말한 자본의 논리로 길들여진 어린이의 이미지 앞에 무력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기억 속에서도 존재하는 낡고 누추한 어린이의 이미지일 뿐이고, “정말 훌



어린이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에 고정돼 있지 않다. 좋은 어린이책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에 대한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룡한 책이 양서가 돼 오래 잘 팔려왔다”는 역사적 서술 속에 있어야 할 ‘양서’가 ‘양서처럼 보이는 책’으로 둔갑한 경우가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라 불리는 요즘, 세계 각지의 정보가 별다른 제약없이 돌아다니고 있고, 세계의 훌륭한 어린이 책 정보도 매우 빠르게 소통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의 어린이책이 많이 번역·출간되고 있는데, 이를 어린이책의 선진화, 다양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는 이들도 많다. 이들은 앞서 말한 신도불이 창작물에 대해 존스럽고 후진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외국의 유명한 책이 왜 훌륭한지 계몽적 입장에서 설명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이런 입장 역시 많은 번역서의 출간이 사회적 소통을 돕는다는 경제결정론적 이론에 근거한 탓에 어린이 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자세를 견지하지는 못한다.

감동으로 소통되는 어린이책을 위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데올로기 결정론적인 삶의 태도가 어린이에 대한 상투적 이미지를 갖게 하고 어린이책을 둘러싼 담론의 헤게모니 싸움을 유도하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어린이책 문화를 살찌우는 데 얼마나 기여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담론은 주로 결과물만을 평가하는 차원이었고 책 한권한권을 만드는 과정(창작이건 번역이건)과, 독자의 손에 전달되기까지 물류 절차 같은, 책이 만들어지고 읽히는 과정상의 모델에 대해서는 탐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어린이책은 나아갈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혼돈의 상태에 있다. 이것은 어린이책을 둘러싼 대화의 내용이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다. 어린이책에 관계하는 이들의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틀 안에 굳어버린 어린이의 이미지를 어떻게 지워나갈지, 그리고 실재하는 아이들의 하루하루의 삶 자체를 어떻게 평가

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혼탁하게만 보이는 우리 사회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즐길 거리가 꽤 많고,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 못지 않게 진지한 탐구열이 있는 아이들도 또한 많다. 어린이책 기획자는 이런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바람직한 어린이의 이미지에 걸맞는 환경은 조성돼 있는가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책의 향기를 흠뻑 느낄 만한 도서관이 집 근처에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아니, 어린이의 실존에 관한 관심은 차치하더라도(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 어른들은 얼마나 즐겁고 진지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인정을 나누며, 그 애길 쓰고, 책으로 만들고, 책을 읽는지, 또 그렇게 만들어진 어린이책 한권을 보고 참 좋은 책이라고 감동할 줄 아는지 훑아 보자.

어린이책이 진지한 개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읽히며, 이미지가 아닌 감동의 언어로 소통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른들 개개인의 감동 체계가 발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서 어린이책의 실상을 타치는 일은 ‘우물에서 숭늉 찾기’나 다를 바 없다.

집과 학원만을 오가며 학습지와 영어회화 책을 끼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 한편으로는 엄청난 자본이 들어간 세계적인 컴퓨터 게임으로 여가를 보내고, 자극적이지만 기막힌 특수 효과를 앞세운 미국·일본의 영상 문화를 즐기는 아이들에게 신도불이 책이든 번역책이든 정말 책 속에서 펼쳐지는 세계도 이런 문화 못지 않은 매력이 있고 전혀 다른 감동의 세계가 있다고 설득하는 것은 어린이책을 만들고, 평가하고, 운동을 벌이는 이들의 가장 현실적인 과제다.●